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29, 파트

열왕기하 22-23장 1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지난 주에 우리는 유다의 말년을 위한 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희망의 순간을 봅니다. 아쉽게도 그 희망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리고 그 순간의 의미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요시야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BC 641년부터 BC 609년까지 통치했지만, 죽을 때 나이는 겨우 39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의 상황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야말로 앗수르 제국의 갑작스러운 붕괴이다. 마지막 중요한 왕은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약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들은 적어도 한동안 이집트를 점령하고 모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예에 안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629년에 죽었을 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0년 안에 마지막 아시리아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밀려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609년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는 이유로 북쪽으로 가서 그가 아시리아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원했던 것이 그와 바빌론 사이에 약한 아시리아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깃도 고개, 즉 해안 도로에서 나오는 좁은 고개에서, 다시 여러분의 관점에서 볼 때, 이집트에서 바빌론으로 가는 큰 고속도로의 관문인 갈멜 산까지 뺀 산맥을 통과합니다. 요시야는 이집트인들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 바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여호와를 섬기노니 너희가 나를 대적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니라”고 말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가 듣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파라오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시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20년만 더 살았더라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시작한 개혁은 갑자기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오른 아들은 세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여호야김으로 25세였습니다. 그의 다음 형은 여호아하스로 23세였습니다.

백성은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어쩌면 그는 반이집트주의자였을 수도 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형 여호야김 대신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불과 석 달 만에 그를 붙잡아 이집트로 끌고 가서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글썄, 그는 즉시 이집트에 매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집트는 유다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쳤고, 여호야김은 먼저 그것을 징수하여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609년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을 위한 파라오의 도움은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군대를 패배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들어오고 여호야김은 말을 갈아탔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들을 버리고 바벨론의 봉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01년에 느부갓네살은 이집트 국경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를 포함해 모두가 놀랐다. 그는 재편성을 위해 군대를 바빌론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여호야김은 기회를 보고 반역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 여파로 바빌로니아인들이 물러나면서 성경 본문이 침입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확실히 그 지역에 아무런 큰 힘도 없이 상황이 붕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모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성장하고 있었고 이집트는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재편성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바빌로니아인들이 정확히 언제, 아마도 599년에 돌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598년에 여호야김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왕과
 역대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그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ings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신비롭네요.

내 생각엔 도시가 포위된 것 같아. 분명히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들은 여호야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김(18세)이 왕위에 오르고 즉시 항복했다. 그는 석 달 전에
 삼촌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 곧 왕족 전체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맛다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느부갓네살은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있어요.

성경은 결코 시드기야를 합법적인 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하수인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그를 왕좌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채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 그것이 그가 선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느부갓네살과 맺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589년 1월에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88이 될 거야. 아니, 89인 것 같아. 어디 보자.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86년 7월에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 이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히 다음 주에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감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좋습니다. 토라를 찾아보겠습니다. 22장 2절에서 요시야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꽤 표준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길을 온전히 따랐으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는 히스기야와 아사 같은 이전 왕들 중 가장 뛰어난 왕들에 대해 우리가 본 것보다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젊은이는 이단적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배도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분명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옳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에 대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위에서 아래까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전통과 구전의 가르침과 입에서 전해지는 말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받아 여호와와 전에 드리는 은을 그에게 준비하게 하라 그것들을 성전 공사를 감독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에게 맡기라.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와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갚게 하라. 그런데 왜 성전을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글썬요, 아직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으쌰세 그렇죠.

52년의 부패. 그리고 나는 여기에 뭔가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나는 웨스트버지니아 주 마운드 근처의 한 힌두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네, 웨스트버지니아주 마운드입니다. 한 무리의 힌두교인들이 큰 농장을 샀는데, 제가 머물면서 집회를 하고 있던 목사님이 이것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오하이오 강 건너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오하이오에 있었습니다.

농장은 엉망이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글썬, 그 사원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무지개의 모든 색깔과 그 밖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서 운전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외관이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리고 나는 그 대답이 이교주의가 이 세상이 실제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안합니다. 이 세상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으쌰세는 여호와와 성전이기에 때문에 성전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교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에 기울인 관심은 그의 신학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세상 이다.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책임을 맡긴 현실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파손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교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임명됩니다.

이제 7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거래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돈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 세기 전에 요아스 휘하에서 일했던 건축자들에 관해 말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왜 내가 전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것이 바로 이 점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즉, 하나님의 위임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실성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우리 행동의 현실과 일치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계가 그림자이고 현실 세계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도록 마법의 의식을 수행한다면 이 세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을 올바르게 수행하는지, 마법을 올바르게 수행하는지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무슨 일인지 의심한다. 실제 성전 공사에서는 성실성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함께 간다. 이제 대제사장은 그 책을 발견하고 그것이 토라의 책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록자나 아마도 서기관에게 줍니다.

여기 NIV가 있어요. 그를 비서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것이 서기관, 작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기 사반이 그것을 요시아에게 가져다주며 말하기를, 제사장 힐기야가 나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는 이것을 토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책일 뿐이고, 또 다른 책일 뿐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것은 단지 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 즉 책 한 권에 불과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배경에서 말했듯이, 오늘날 구약성서 학자 중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책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으며 그의 인용문은 모두 신명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발견된 것은 신명기라는 주장이 있었고, 예언 집단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교에 대해 정말로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유일신교와 야훼 성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수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책을 써서 마치 모세가 쓴 것처럼 보이도록 거기에 붙여 두었습니다. 내가 말하건데, 그것이 오늘날 구약학자들 사이의 대다수 의견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어떻게 미국 헌법을 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좋아요, 아마 사본이 여러 개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가르치거나 읽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네,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글쓰기가 많지 않은 사회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글이 많았지만 많지는 않았고, 어차피 구술 전통이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실천에서도 사라졌던 것 같아요. 므낫세 이전과 므낫세와 암몬 시대 55년 동안 그것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견해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알고 있다고 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받아들였고, 당신은 사람들이 명예롭게 기억할 어떤 노인의 이름을 넣어 당신의 가르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위경의 표시 중 하나, 즉 우리 정경, 표준 컬렉션에 없는 책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분명히 쓴 것입니다. 즉, 책이 자신이 주장한 내용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책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약학 학생 중 한 명은 실제로는 그 책을 믿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책에 모세가 썼다고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충분합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왕은 흥미롭게도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이 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물으라. 그는 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그것이 말한 것을 믿었고 우리는 이전에 그의 성격에 대해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쓰여진 글은 몰랐을지라도 그는 야훼를 알았고 야훼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이제 위대한 스캇, 여기 야훼로부터 영감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즉, 그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 부분에서는 이 단어가 당신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부드러워지고 있습니까?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 내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편한 생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 주위에 벽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의 진실을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당신의 뜻을 원합니다.